

# | 해양민속 |



# 진도의 주변성과 해양성

| 이토 아비토(伊藤 亞人) | 도쿄대학 명예교수

a.ito5@kurenai.waseda.jp

## 차례

- |                           |                     |
|---------------------------|---------------------|
| I. 서                      | V. 바다의 주변성          |
| II. 진도와 본토                | VI. 왕조 체제와 진도       |
| III. 섬의 생업                | VII. 지역 축제와 바다의 상징성 |
| IV. 산의 성성(聖性)과 바다의 속성(俗性) | VIII. 결             |

## I. 서

필자는 동아시아 사회의 인류학적 연구를 목표로 하고,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라남도의 진도에서 농촌사회의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해 왔다. 동아시아 사회의 한 사례로서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전망이 요구된다. 내륙의 농촌지방을 피해서 연해도서지방을 선택한 것, 진도(珍島)라는 섬을 선정하는 것의 타당성, 그것에 의한 가능성과 한계성에 대해 고민을 했었다. 사회 전체의 통합성을 생각하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부분이나, 전체와의 관련이나 맥락을 근거로 하고, 사례의 위치 부여에 유의한다면 어떤 사례연구라도 전체 사회의 연구에 의미를 줄 수 있다. 즉 사례

는 어디든지 좋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 연구에 착수한 1970년 당시는, 인류학에 의한 본격적인 사례연구의 전례가 아직 없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전후 처음 필자의 조사 지역은 학회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조사대상인 한국 사회에서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니 될 수 있는 한 일반적인 사례를 선택해야 했고, 특수한 사례를 피해야 했다. 그 조건으로서는 농촌을 선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장래에 걸쳐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조사지역으로 선택한 전라남도 진도의 사회적인 위치를 검토하는 것이다.

## II. 진도와 본토

진도는 전라남도에서도 지리적으로 주변에 자리잡은 도서부에 있지만 연해도서지방 중에서도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결코 작은 섬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육지와 분리된’ 이도(離島)라고도 보기 어렵다. 왕조시대부터 중앙집권국가체제의 밑에서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진도 본도와 초도 제도 및 주변의 작은 섬들을 합해 진도군(珍島郡)을 이뤄 왔다. 진도 본도와 본토 측의 해남군(海南郡) 화원군(花源郡)은 조류가 빠른 것으로 알려진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근접해 있다.

예전에 도내의 교통·운반은 해상교통으로서 범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본토측의 해남군이나 영암군과의 교통에서도 동력배가 도입되기 전에는 재래의 범선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소포(素浦) 이외에도 포구가 몇 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목포(木浦)가 개항되고

나서도 범선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며칠이나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한다. 동력선에 의한 순항선이 취항하는 동시에 진도를 비롯해 도서부는 목포와 사회경제적으로 깊이 결부되어 있어서 사람이나 물진이 빈번하게 왕래하게 되었다.

개항후의 목포는 군산(郡山)과 같이 쌀 등의 농산물을 실어낼 항입과 동시에 이들 도서지방에서의 벼농사, 목화재배, 제염업, 어업 등의 발전에 따라 물자의 집산지로서 발전했다. 진도도 농업 분야에서는 논의 간척에 의해 미곡증산, 목화의 대규모 재배를 진흥하는 정책이 진행되어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권에 편입되게 되었다. 진도의 읍내까지 깊게 들어 있었던 바다가인 해창(海倉)에는 농산물 창고가 설치되어 물류의 거점이 되었다.

필자가 현지조사에 착수한 1972년 당시 만라도 임회면(臨涯面)의 십일시(十日市)의 바로 앞바다까지 배가 계류되어 있었다. 이 연해도서지방의 중심인 목포주민 안에는 이들 도서부에서 진출해온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어느 섬도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수보다 훨씬 많은 섬 출신자가 목포에 살고 섬마다 따로 향우회를 조직하고 있었다.

진도의 경우도 본토와의 사이에 연륙교가 가설된 1984년까지는 주민들은 순항선을 이용해 목포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 광주나 서울로 가는 경우도 목포를 경유하는 적이 많았다. 주민의 대부분은 평소에는 바다와 관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도 소포의 부두로부터 순항선을 이용해서 배 갑판에서 갯바람을 쐬거나 좁은 여객선 선실이 초만원이 될 때마다 섬사람인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가교 이전에는 해협의 건너편의 해남군의 화원반도와 진도 사이에 철제의 소형 페리도 운항하고 있었다. 광주에서 급한 볼 일이 있을 때는 이 페리를 이용하는 직행버스로 향했지만 도로 사정은 대단히

나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러나 도로가 정비되어 다리가 생긴 후는 깜빡하고 있는 사이에 언제 진도로 건너왔을지도 모른다. 도서성이나 해양성은 점점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진도는 다도해의 여러 섬 가운데 많은 인구나 풍부한 농업기반의 혜택을 받아 지역사회로서의 집적이나 자율성도 높다. 조선왕조시대부터 중앙집권의 국가체제 속에 위치가 부여되어 왔지만, 한편 사회적·정치적으로는 주변에 위치 부여되어 왔다. 그것은 진도에 한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지방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의 중앙집권체제에 따르는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중앙과의 관계에서 도서사회의 주변적인 위치는 생활 기반으로 농업을 중시해온 농본주의체제를 반영하는 것이며, 섬이라는 입지에 있으면서도 바다에의 생활의 의존, 해양이 끼쳐온 생활양식의 특질에 대해서도, 섬 사회라고 하는 기성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I. 섬의 생업

생업 등의 생태학적인 면에 주목한다면, 호남지방은 온난한 기후와 평야지대라는 특성 때문에 수도 경작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곡창지대라 할 수 있다. 벼농사는 여름의 기온이 충분히 높으면 반도북부에서도 하천연안이나 연해의 평야부라면 충분히 가능하여 결코 반도남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반도의 중부·남부에서도, 관개용의 수원을 확보할 수 없는 산간의 경사지나 구릉지에서는 밭농사에 의한 보리가 주요 작물이다. 삼국시대에도 쌀을 정조(正租)로 한 백제이래 호남지방은 벼농사의 곡창지대로 여겨져 왔다. 호남지방에서

벼농사의 전통은 한국의 민족문화·민족사회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관개에 의한 벼농사가 높은 집약성과 생산성을 떠받쳐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정착성, 촌락의 사회조직과 노동 관행, 또 식문화나 물질문화, 신앙이나 의례 등 맛과 멋으로 집약되는 민속문화의 전통 등을 집적할 수 있었다. 또 벼농사는 식료정책이나 농업정책의 근본으로 대소 하천유역의 치수나 관개와도 떼어버릴 수는 없다. 더욱 연해지방이나 도서지방에서는 얇은 바다를 제방을 간막이로 해서 간척하는 사업이 추진되어 후미나 개펄에 광대한 논이 개척되었다. 수도경작은 지역개발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해도서지방에서는 낮은 구릉지대에서 황토 밭농사 지대가 넓어지고, 도서부에서도 높은 산이 없는 비교적 평탄한 섬에서는 수전용(水田用)의 수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보리, 조, 감자 등의 밭농사가 주된 것이다. 그러나 진도에서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내에 400미터를 넘는 산이 4개나 있다. 도내에는 분지장의 평지가 열려 있어 풍요로운 수원과 비옥한 토지의 혜택을 받아서 수전이 펼쳐져 있다. 농지에서 차지하는 수전의 비율은 전라남도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진도군지편찬위원회 편, 『진도군지』, 2007년, 167쪽). 도서부에 있으면서도 수도경작의 조건에 알맞은 자연조건을 갖고 있어 진도는 논이 적은 제주도에 쌀을 공급하여 왔다. 진도에서 제주도로의 쌀 수송을 독점해 온 것도 진도의 배들이며, 그러한 관계로 제주도에는 진도 출신자도 많아 진도향우회도 조직되어 있다.

농업, 특히 벼농사 면에서 진도는 본토와 비교해도 주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진도본토의 촌락은 대부분이 농지를 생활기반으로 삼아 해안에 위치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대 필자가 조사지로 선택한 농촌도 섬의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에서는 바다를 접할 수 없을 만큼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진도가 전국의 섬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던 것은 무속의례의 사설이나 무가에서도 “一제주(濟州), 二강화(江華), 三거제(巨濟), 四진도(珍島)”라고 자주 불려져 왔다. 그러나 간척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결과, 지금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면적이 큰 섬이 되었다. 이런 간척사업은 얇은 바다의 간만 차이도 큰 연해도서지방에서 널리 진행되었다. 도서지방에서 간척사업은 해안을 매립함과 동시에 배경의 산기슭에 수원용의 저수지를 확보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 그러한 수원을 확보할 수 없고 간척을 단념한 땅에서도 해방 후에는 전력을 이용한 양수에 의해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간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후미의 간척사업에 의해 경작지를 늘린 것은 진도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1910년대에 도내의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마감한 제방 위에 새로운 신작로가 정비되어 차도가 개통되어 도내의 교통사정도 크게 바뀌었다. 예전은 섬의 지형이 뒤엎혀서 복잡했기 때문에 육상에서는 산등성이를 넘는 고갯길을 지계를 지던지 소 등에 쌓아서 물건을 나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범선으로 후미에 드나드는 것이 편리했다고 한다. 사람들도 조수의 간만이나 바람에 대해 민감하게 파악하고 지냈다고 한다.

갯벌의 해산물은 연해주민의 자급적인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지만 상품으로서는 농촌의 정기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갯벌에서 하는 작업은 농사에 비해서는 주변적인 것이라고 해도 바다가 주민들의 식생활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을 위주로 해온 진도 본도의 농촌에서는 섬의 모습은 그다지 느낄 수 없지만, 본도 주변의 속도부에서는 초도제도를 비롯해 떨어진 섬에서는 어업의 사정은 본도와는 많이 다르다. 초도제도를 예로 들어 보면 재래의 범선에 의한 조기 고기잡이는, 영광의 칠산제도

(七山諸島) 부근의 어장을 비롯해 계절적으로 원거리로 출어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 식민지기에는 아귀 그물 등 조류를 이용한 규모 큰 어벌도 도입되어 재력에서는 진도 본도를 능가하는 자도 나타나, 본도의 논을 매입해서 대지주가 속출했을 정도다. 농업에서는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떨어진 섬들이 종래는 천업으로 간주된 어업을 통해 급속히 발전한 결과 수전을 취득하는 것으로 경제면에서 지위 역전이 생겼을 정도다.

#### IV. 산의 성성(聖性)과 바다의 속성(俗性)

연해도서 지방주민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해 온 요인으로서 산과 바다를 대하는 귀천의 가치의식이나 종교적인 관념이라고도 말할만한 대조적인 가치지향·공간인식에 대해서 보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호남지방에 한하지 않고 조선왕조시대부터의 일반적인 공간인식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의 신성성(神聖性)에 대한 바다의 세속성이라고 해야 할 대비다.

산은, 풍수지리나 도참설 혹은 산신 신앙에 명확히 나타난 바와 같이, 생기를 초래하는 근원이라도 간주되어 사회질서유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나 구심적인 권위와 결부되어 있고, 지역의 생활세계를 떠받쳐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다는 육지 주민에게 결코 긍정적인 가치와 결부되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바다는 육지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전염병 등의 화나, 왜구로 대표되는 외적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점에서 전통사회의 공간인식에서 해양은 긍정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언해 두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해양은 어디까지나 본토의 산과 대비된 것으로 멀리 떨어진 바다이다. 바닷가의 갯벌이나 염전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양식을 생산하는 곳으로 그 가치를 경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갯벌에 대하여도 여성의 노동이나 일상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오늘과 같이 높아지기 전에는 민속학자들조차도 관심이 낮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연해는 그물고기잡이와 함께 김이나 미역이나 우뚝가사리 등의 해초가 건조되어 상품가치를 가지게 되는 동시에 연해주민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또한 신선한 해산물이 술의 안주의 진미로서 소비됨에 따라 오늘날은 바다에 대하여 거부감을 품는 사람들이 적어졌다. 바다는 풍부해서 미식의 자원공간으로 간주되게 되고, 조개잡이나 해수욕을 즐기게 되었지만, 그러한 바다에 대한 현대인의 관념을 과거에 그대로 투영해서는 안된다. 난바다에 나가서 어로에 종사하는 자는 도서지역인 서해나 다도해에서조차도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sup>1)</sup>

1) 연해주민의 바다에 대한 관념과 태도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달랐다. 일본에서도 연안주민 가운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령 바닷가에 입지하는 농촌에서도 일반적으로 바다나 어업에 대하여 무관심 또는 소극적인 마음이 많아 이른바 바다와 관계 없이 생활하고 있었던 마을이 많았다. 그것은 농업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에 따르는 것으로, 특히 중부이서의 서일본(西日本)의 각 번(藩)에서는 농민이 어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엄하게 규제하는 지방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해촌락 가운데 하마(浜)라든가 우라(浦)라고 분류되는 촌락 중에는 중세이래의 연해어업이나 근해어업에 특화된 전업어민(專業漁民)의 촌락들이 적지 않고, 연해지역에서 독점적인 어업특권을 인정되는 동시에 번(藩)에서의 공무를 담당하는 임무를 맡아 있었고, 그 대신에 농지를 일체 가지지 않는 촌락들이 존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해사회는 지방영주의 번(藩)마다 차이는 있었다고 해도, 특히 일본의 서남연해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어(農-漁)의 분업체제와 분할적인 통치가 깔려 있었던 것이어서, 어민과 농민은 교역에 의해 결부되어 있었던 반면에 통혼(通婚)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업어민의 마음은 직업선택이 자유화된 명치유신(明治)이후도 그 독자적인 어업기술과 생활양식을 온존하면서 관행어업특권을 근거로 행세해 왔다. 전후에 민주화 정책의 철저화에 따라 관행어업권은 많이 해체되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연해지역사회에서 어업에 특화된 순수한 어촌이라면 이러한 중세이래의 전업어촌이 두드러진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해사회에서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나 자세에는 이러한 주민 속의 생활전통의 차이를 무시해서 일반화하면 안 될 것이다.

풍수지리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산에는 생명이나 부귀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생기가 흐르는 맥이 있어서, 사람들은 자손번영과 부귀를 기대해서 생기가 가득 찬 명당(明堂)의 땅을 찾았다. 불교에서도 이러한 산속의 영험이나 약수나 산신신앙과 결부되고 있어, 명찰도 명산의 중턱이나 기슭의 경승지에 위치하고, 영험과 관광에서 명소가 되고 있다. 산맥은 이러한 영산으로부터 흐르는 기운의 맥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게다가 큰 맥에 따라서 반도의 대간인 백두산을 생기의 근원으로 상정되고 있었다. 그리고 백두산으로부터 더욱 원류를 더듬어 가면 최종적으로는 곤륜(崑崙)산에까지 근원을 추적할 수 있다. 즉 산은 영에 따라 흐르는 지맥을 통해서 큰 계보적인 체계를 이룬다고 여겨졌고, 생기에도 정통성이 부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국의 산을 이러한 기맥의 흐름에 따라 그린 것에 김정호의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1861년)가 있고, 산의 계보를 족보와 같이 편찬한 것이 『산경표(山經表)』<sup>2)</sup>이다. 혹은 민간 독경사가 이용하는 경문류 속에도 풍수설적·도교적인 민속세계를 반영하는 「답산법문(踏山法文)」이나 「산령경(山靈經)」에는 이러한 산이나 산령의 계보적인 질서와 명당(明堂)이 제시되어 있다.<sup>3)</sup> 또 무속의 곳에서도 산신거리에서 무녀가 암송하는 사설 속에 곤륜(崑崙)에서 풀어서 백두산을 거쳐서 각지명산의 산신을 순서대로 들면서 그 지역의 산신령에 이르기까지 순차 산신의 영험을 가리키는 것이 있다. 이렇게 중앙 집권

2) 申景濬, 『산경표(山經譜)』, 최남선편, 조선광문회, 1913년(영인판, 민속원, 1995년).

3) 「답산법문(踏山法文)」에서는 백두산으로부터 함경도를 비롯하여,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순서대로 팔도를 돌고, 풍수상의 주산·청용·백호 등을 찾아 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당지의 풍수를 묘사하고 나서 그 집터의 명당을 칭찬한 형식이 되고 있다. 또 「산령경(山靈經)」은 산의 근본인 보태산(胞胎山)과 산의 조종인 곤륜(崑崙)에서 설명을 시작하여, 그 맥에 따라 오악(五岳)과 제산령을 가리킨 후 백두산, 금강산, 계룡산 등 천하의 명산 산신령이 강림하는 명당을 가리키면서, 이 명당을 해치는 우환질병과 화(禍), 액 등 삼화팔난(三禍八難)의 소멸에 의한国泰민안(國泰民安)과 호약장생(好藥長生)을 발원하는 내용이 되어 있다(이토(伊藤), 1994년).

적인 행정과 같은 식으로 산도 계보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어서, 사회의 질서는 산에 따라서 보장되어 중앙에 위치하는 산에 그 영험과 정통성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다는 난바다를 향해서 개방적으로 뻗쳐 있어서 중심이 될 지리적인 지표가 결여되고 있어 산맥과 같이 구심적·체계적인 세계관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해도서지방에서 군사적인 진(鎭)이나 영(營), 개항후의 항구가 국가의 군사 경제의 거점이 되어 왔지만, 그 활동의 주된 공간은 앞바다서 펼쳐지는 해역이었다. 서해의 낙도 중에는 계절적인 어업의 기지가 되어서, 어기가 되면 어선을 대상으로 삼는 상인이 많이 모이는 섬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업거점도 원래 유동적이어서 긍정적인 가치의 근원이 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업의 기지로서 어촌이나 어항이 경제적인 중심성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근대화 이후라도 보아도 좋을 것이다.

도참설(圖讖說)이 가리킨 바와 같이, 신비로운 법력을 구비하고 비결(秘訣)을 소유한 이승(異僧)은 금강산(金剛山)이나 지리산(智異山) 등의 명산으로부터 출현한다고 여겨졌다.<sup>4)</sup> 세상의 혼란을 다스리기 위해 새 왕조를 여는 진인(真人)도 마땅한 영산에 출현한다고 예언되고 있었다. 혹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천재나 전란이나 전염병 등의 모든 재해를 피할 수 있다고 것이 약속된 안전한 땅으로서 비결 속에서 상정된 「십승지지(十勝之地)」도 모두 산간부에 위치한다.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산은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장수나 건강의 비약으로 알려진 약초도 모두 심산으로부터 초래된다. 산의 짐승도 대부분이 어떠한 자양이나 정력원과 결부되어 왔다.

4) 지리산에서 이승(異僧)이 출현한다는 참설(讖說)에 대해서는 태조의 형국(享國) 전설에 관해서 『태조실록』,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도전의 『삼봉집(三峰集)』, 이정항(李廷馨) 『동각잡기(東閣雜記)』 등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이토(伊藤), 2003년 등을 참조하라.

원래 난바다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가치관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서 더럽혀진 곳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것은 배를 조종해서 앞바다의 어업에 종사하는 연해의 어민을 천시하는 것과도 관련된 것 같다. 조선왕조시절부터 어로는 미천한 생업이라고 간주되어 왔는데, 어업이 경제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또 해양 자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아마 일본에 의한 식민지정책 밑에서 난바다 어업이 근대적인 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시작된 것인지 아닐까? 특히 서일본(西日本)의 각지에서 통어(通漁) 형태로 객지로 출어하는 전문어민(專業漁民)들이 연해 각지에 건설한 어업거점과 새로운 어법·어구 및 수산가공업이 끼친 영향이 컸던 것 같다. 그러한 통어민(通漁民)들의 기지로서 개척된 어촌의 상황은 최길성(崔吉城)이 보고한 거문도(巨文島)의 사례를 보면 명확하다.

최근에는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의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해초 등의 해산물이 건강식품으로 여겨지고, 또 수영이나 해수욕 바다낚시 등의 마린 스포츠가 건강과 결부되어 성행하게 되었다. 농촌의 과소화·노령화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촌은 활기를 보이고 있다. 근년에는 양식 기술의 보급 및 유통면의 발달도 이루어져서 바닷가는 어디나 생선횃집이 개점되어 있어 휴일에는 도시에서 온 자가용들이 늘어서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 V. 바다의 주변성

연해도서지방은 농본주의의 왕조사회에서 사회경제사적으로는 주변적인 위치가 되어 왔으며, 바다를 건너 외부에 열려 있는 것이 반

도사회를 해치는 불안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중국 대륙이나 일본 열도와와의 교통의 중계지임과 동시에 왜구를 비롯해서 자주 외적의 위협을 받는 곳으로 비쳐져 왔다. 대외방어를 위해서 수군이 주둔한 진이나 영뿐만 아니라 해안의 요점을 잡은 산 정상에는 봉수대(烽燧台)를 두어져 변경방위를 위한 통신망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이외에도 이 해역을 일상적인 생활권으로 하는 어민을 비롯해 교역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왕조사회나 국가의 중심에서 보면, 연해도서지방은 토지와와의 관계가 약한 유동적인 사람들의 생활권이며, 외부에서의 위협을 당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스스로 기동성을 살리고 혼란에 타서 불온한 세력과 연계하거나 그 일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오래 전에는 장보고(張保臯)와 같이 스스로 도서지역의 요충이었던 완도의 청해진(淸海鎭)에 거점을 두고, 중국에서 일본의 규슈(九州) 서북부에 이르는 해역에서 활동해서 일대 해상세력을 형성한 예도 있다. 일본의 입당승(入唐僧)인 엔닌(円仁)이 지금의 산둥반도로 건너갔을 때 장보고(張保臯)의 도움을 받은 것이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예전에는 장보고를 왕조사관(王朝史觀)의 시각으로 역적(逆賊)과 같이 간주되고 있었기 때문일까? 장보고가 그렇게 중시되어 오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된다. 장보고(張保臯)의 활동이 본격적인 관심을 부르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이며, 왕조사관·국가사관과는 다른 시점에서 변경의 주민을 다시 사로잡자는 움직임이나, 국제화에 따르는 바다를 통한 교류에 의해 지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움직임과도 관련되어 있다.

연해지방의 불안요인으로서 왕조의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구다. 그러나 그 왜구라고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말을

확보하여 내륙 깊이까지 침공한 예까지 나타나므로, 그것이 어떤 존재이었던 것인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었던 것인가, 또 연해의 크고 작은 섬들의 생활환경이나 주민과 어떤 관계에 있었던 것인가를 문헌을 통해 검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무라이 쇼수케(村井章介)가 『고려사』의 기사를 기초로 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있는 대로,<sup>5)</sup> 고려말의 반도사회에서 왜구라고 기록된 사람들의 성격은 그 주변적·유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상호연계적인 사회상황을 충분히 근거로 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연해도서지방에서 육지의 주민과는 달리 해상 생활에 익숙하고 배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넓은 해역을 생활무대로 하는 사람들을 기록자료에서 찾으려고 하면 예전에 제주도를 거점으로 하여 넓은 해역을 돌아다녔다고 생각되는 포작간(鮑作干) 또는 두무악(豆無岳)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왜구를 치장해서 약탈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된 양수척(楊水尺)의 존재도 떠오른다. 또 이외에도 조선 시대에 선상생활의 사람들이 기록에 보이고,<sup>6)</sup> 쓰시마(對馬)나 규슈(九州) 서북의 많은 섬들을 거점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왜선(倭船)의 존재도 조선왕조에게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들 모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점을 가지면서도 특정한 땅에 정착할 일 없이 연해해역을 계절적인 활동권으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대부분은 중국의 연해지방의 선상생활 어민인 단민(蜃民)이나 일본의 일부 서남지역에 선상생활을 보내온 예부네(家船)라고 하는 어민들과 같이, 평상시에는 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어획물을 연해지역의 농민과 교역하거나 하고 있었던 어민이며, 왜구도 이러한 어민의 일부가 사회혼란을

5) 무라이쇼수케(村井章介), 2010년.

6) (도쿄대학東京大學)의 로쿠탄다 유타카(六反田豊) 교수에 따르는 것으로, 성종실록에 「以船為家」라고 하는 기재가 있다고 한다.

타서 기동력을 발휘해서 약탈적인 성격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연해도서지방의 상황을 생각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부의 연해도서 지방에서의 상황에 참고가 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이토, 1992).

## VI. 왕조체제와 진도

지방행정의 기본단위인 군의 읍성 및 관아 등의 건조물의 배치도, 기본적으로는 주례(周禮)의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따르는 왕도의 기본 모델에 따르는 것이었다. 진도에서도 읍성의 배후에는 풍수상 진산에 해당하는 북산인 철마산(鐵馬山)이 자리잡고, 성벽에서 둘러싸여진 읍성은 그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남대문에서는 맞은 편에 남산을 바라 볼 수 있게 배치되었다. 읍성 동쪽(왼쪽)에는 종묘에 상응하는 향현사(鄉賢祠)라는 사당이 두어져 관에 의해 제사가 행해졌고, 서측(오른쪽)에는 향교, 그 서쪽 밖(西郊)에는 여단(廛壇)이 설치되어 있었다. 읍성의 주위는 민간인의 거주지가 되어 농촌 마을이 뻗어 있었다.

행정·관의 중심성과 농촌·민의 주변성은 연해지방의 읍이나 진을 그린 지도(7)에 수록된 규장각(奎章閣) 소장 「전라도지도」(1872년)에 모식화해서 그려지고 있는 대로 관아와 그것을 네모나게 벽으로 둘러싸는 읍성을 중심으로 전체가 동심원상으로 배치되고 있다. 성벽을 둘러싸는 농촌부에는 지명이 작게 적혀 있을 정도로 그 주위는 치솟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배후는 해변이 있을 것이지만, 두 개의

7) 金井晸撰, 『전남의 옛지도』, 향토문화진흥원, 1994년.

진을 제외한 해변의 촌락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관심이 희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을 중심으로 한 공간인식으로 연해도서부와 해변의 주변성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왕조시대 체제 하에서 정치적 주변성과 바다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에는 고려조의 삼별초군도 그러한 반체제세력이며 강화도에서 해로를 따라 남방으로 이주하여 진도에 거점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연해도서부에 이것을 받아들일 태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삼별초군은 이에 앞서 왜구에 의한 침범의 의도가 전해졌을 때 연해지방의 경비에 힘을 써서 장선현(彰善縣)에 소장되고 있었던 국사(國史)를 진도에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니, 이미 진도와는 무엇인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sup>8)</sup> 왕조내부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은 체제와 반체제, 조정과 역신, 내륙평야와 연해도서와 같은 좌표축에 의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선 왕조시대에는 「정여립(鄭汝立)의 옥(己丑士禍)을 비롯해서 사화 때마다, 중앙정계에서 실각해서 하야한 자나 혹은 역신의 오명을 씌울 수 있어서 숙청의 손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 도서지방에 피신 잠거(避身潛居)해서 명예회복과 복권의 기회를 바라며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진도의 족보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sup>9)</sup>

신라의 육부족의 자손을 비롯해 고려조부터 조선왕조시대를 통해서 중앙정계에서 세력을 유지해 온 명문사족은 그 대부분이 내륙의 구읍부(舊邑府)에 본관을 두고 있다. 과거의 등제자를 배출한 명문씨족에서 연해도서지방에 본관을 둔 씨족은 압해도의 압해정씨(押海丁氏)가 유일한 예외라고 해도 좋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호남지

8) 『고려사』 「元宗己巳十年五月丙午 慶尙道按察使馳報 濟州人漂風至日本還言 日本 具兵船將寇 於是遣三別抄及大角班巡戍海邊 又令沿海郡縣築城積穀 移彰善縣所藏國史 於珍島」.

9) 진도의 광산이씨(光山李氏)의 예에 대해서 (이토(伊藤)1990년)을 참조.

방에서도 특히 연해도서부나 제주도가 유배지로 지정되어 온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진도의 주변성을 결정지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조정이나 행정과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단적인 예가 고려 왕조시의 삼별초군의 반란이다. 고려왕조가 몽고군에 항복하여 강화도에서 왕도로 귀환했을 때, 몽고에 대한 철저항전을 주장한 배중손(裴仲孫)이 지휘하는 삼별초군이 고려왕실과 고려 정규군에 반항하여 승화후온(承化候溫)을 왕으로 추대하여 세력을 남쪽으로 전개해서 진도를 거점으로, 단기간이라고는 해도 연해지방을 지배하에 둔 것이다. 고려왕조는 정규군을 파견해서 원군과 협력해서 삼별초 세력을 토벌했다. 삼별초군은 역적으로 간주되어 그 거점이 된 진도는 평정되어 가혹한 전후처리에 의해 주민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의 전란에 관련된 전설은 지금도 도내 여러 곳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 이래의 정사에서 「반역」으로 취급되어온 삼별초군의 장군인 배중손(裴仲孫)도 최근에 이르러 역사인식의 변화에 따라 항몽애국의 장군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또 위왕 승화후온(承化候溫) 및 그 딸의 무덤이라고 전해 온 묘도 위왕이라고 하는 표기를 삭제해서 사적으로서 정비되어, 2004년 5월에는 왕의 사후 733년만에 처음으로 묘앞에서 제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또, 최근에는 이제까지의 왕조사관에 얽매이지 않는 주민의 의향을 반영하여 왕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무속의례(씻김굿)가 주민의 손으로 행하여지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진도남부의 한 농촌인 굴포(屈浦)에서는 장군당이라고 불리는 사당에서 행하여져 온 마을축제가 배중손(裴仲孫) 장군을 모셔 온 것이라고 설명되게 되었다. 드디어 배씨 문중에게 알려지게 되고, 문중이 자금을 제공해서 큰 제각(祭閣)으로 개축되어 문중에 의한 제사를 모시기에 이르렀다. 그 옆에는 배중손(裴仲孫) 장군의 동상도 세워져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다. 배중손(裴仲孫) 장군은 역

신의 오명이 씩워져 있으면서도, 이민족의 지배에 저항해서 억울하게 희생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와 비슷하게 전란에 말려들거나 정쟁에 의한 숙청의 난을 벗어나거나 해서 이 섬에 건너온 사람의 자손들에게는 영웅적인 존재로서 복권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연해도서지방의 이러한 정치적 주변성은 중앙집권제하의 현대적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삼별초의 항쟁이 평정된 후에 군마 사육을 위해 설치된 목(牧)도 진도의 주변적 위치를 내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된다. 오늘도 진도라고 하면 누구라도 진돗개를 상기하여 마치 진도에는 개박에 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개도 이 섬의 주변성을 상징하는 것 같다고 해도 될 것이다.

14세기에 들어가서 왜(倭)가 진도해역을 빈번하게 침범하기 시작하자 고려조는 군현(郡縣)의 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도민과 왜구의 접촉을 끊기 위해 충정왕 2년(1350년)에 진도군의 행정기관과 군민을 본토, 즉 나주남쪽의 월악(月岳, 오늘의 영암군 시종면 월악마을)에 피난시켜, 뒤에는 더욱 영암의 북명산(北命山) 그리고 해남의 금산(金山)으로 이전시켰다(『진도군지』, 102-103쪽). 그 결과 진도의 땅은 고려의 행정으로부터 포기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주민의 격감에 의해 그 대부분이 황무지화했다. 그러나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진도로 이주한 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도에서 현재 가장 오래된 가문의 하나로 여겨지는 무안박씨의 전승과 족보의 기재에 의하면 그 입도조는 이 시기에 진도에 이주 개척했다고 한다. 또 공민왕 6년(1357년) 때에는 우정언(右正言)의 지위에 있었던 조희직(曹希直)이 진도에 유배되었고, 오늘날 진도에서 세대수로 두 번째에 많은 창녕조씨(昌寧曹氏)의 입도조가 되었다(『진도군지』, 1976, 104-105쪽). 무안박씨와 창녕조씨는 밀양박씨와 김해김씨와 함께 진도의 토박이라고 전해진다.

조선왕조기에 남부연해지방의 치안이 회복됨에 따라 군민이 피난해 있었던 본토의 일부와 진도를 합친 지역에 걸쳐 군정(해진군 海珍郡)이 설치되었지만, 군의 행정은 본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종10년(1437년)이 되어서 해진군에서 분리해서 87년만에 진도군이 재흥되어, 진도 내에 읍성이 두어지게 이르렀다(『진도군지』, 1976, 110-114쪽). 그 때에 이들 박박조김(朴朴曹金)이라고 불리는 4씨족의 유지 5명을 설군에 공헌이 컸다고 인정되어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현(五賢)을 향현사(鄉賢祠)에 모셔져 군에 의해 제향(祭亨)되어왔다. 당시의 진도군에는 도내의 면에 더하기 이전의 피난지였던 육지부에도 두 개의 면(面)이 두어졌다. 그 후 도내의 개척도 진행되었다고 생각되지만 16세기에 들어가면 명종(明宗) 8년(1553년)부터 3년간에 걸쳐 다시 왜(倭)의 침범을 당하고, 드디어 임진·정유의 두 번에 걸쳐 히데요시(秀吉)의 지휘하의 일본군의 침공을 받기에 이르렀다.

왕조시대의 진도는 다도해해역에서의 군사상의 요지로 여겨지고, 많은 무신이 진도에 부임되었다. 진도에 거주하는 씨족문중에는 이러한 무신으로서 진도에 귀농해서 입도조가 된 자도 적지 않다. 진도에는 외양에 향한 남도진(南桃鎭)과 금갑진(金甲鎭)의 두 군데에 무관의 만호(萬戶)가 주둔하는 진이 두어져 석성이 쌓여져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이들 만호(萬戶)는 포기되었지만 1700년 전후로부터 다시 정비되었다. 1895년의 『남도진지(南桃鎭誌)』에 의하면, 여기에 군관장교, 기패관(旗牌官), 진무관(鎭武官), 기라졸(旗羅卒), 주사군(舟師軍), 작대군(作隊軍) 등이 배치되어 식료품과 무기류가 비축되고 있었지만, 1894년에 본토에서 쫓긴 동학군(東學軍)이 이 성을 점거해서 병기 중에서 화약, 탄환(彈丸), 조총(鳥銃), 환도(環刀), 삼사창(三枝槍)을 가지고 달아나고, 2년 후에는 일본군의 관할하에 둬

과 동시에 주둔하고 있었던 수군도 철수했다.<sup>10)</sup> 진(鎭) 이외에 섬의 최고봉인 점찰산(尖察山)과 외양을 바라다 보이는 여귀산(女貴山)의 정상에는 봉수대가 두어져, 해남의 관두산(館頭山), 여귀산, 점찰산, 해남의 일성산(日成山)이 호응해서 전국의 연해지방을 망라하는 통신망이 갖추어져 있었다.<sup>11)</sup>

진도의 정치적 주변성을 단적으로 내보이는 것으로 유배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진도의 유배는 고려왕조 때도 이미 삼별초의 반역 이전부터 기록에 드러나고 있지만,<sup>12)</sup> 조선왕조기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 왕조말까지 주로 중앙정계에서 많은 문인정치범이 유배되었다. 그 안에는 진도 칩거 중에 많은 문인을 기른 노소재(盧蘇齋)를 비롯하여 뒤에 현지주민에 의해 봉암서원(鳳巖書院)에서 배향(配享)된 자도 적지 않다. 또 정만조(鄭萬朝)와 같이 박식함으로 군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 혹은 개화기의 근대적 애국지사들과 같이, 유배자의 존재는 이러한 변경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된다(『진도군지』, 1976, 122-134쪽). 왕조시대의 고위문인들이 즐긴 서화의 전통이 이런 지리·정치적으로 변경의 땅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에 비할 데 없는 전통을 이루어 온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소치 허련(小痴 許鍊)을 시조로 하는 진도출신의 화인들이 남종화 속에서 차지해 온 위치는 압도적인 것이다. 그 연원은 이 땅에 유배된 문인과의 교류를 빼놓고는 생각될 수 없다. 유배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주민은 중앙의 세련된 문예에 접촉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10) 진도군 진도문화원편 『진도군읍지』, 1987년, 107-108 수록 「開國五百四年三月日 南桃鎭 在鎭誌成冊」.

11) 『진도군읍지』, pp.55-56.

12) 『고려사』의 仁宗 丁未五年 五月壬辰條에 「流同知樞密院事崔惟迪慶州 部侍碩于珍島」의 기재가 있어, 또 열전(列傳) 중의 이자겸(李資謙) 및 정중부(鄭仲夫)에 관해서 진도에서의 유형 내지 축방(逐放)의 기록이 있다.

## VII. 지역사회와 바다의 상징성

진도에서의 축제만들기의 움직임은 연해도서지방에서의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왕조시대 이래의 정치적 사회적인 주변성의 자각과 극복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어 있다. 그 점에서도 지역축제는 주민의 생활관이나 사회관을 규정해온 가치나 이념을 표출하는 의례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 축제라고 해도 그 주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종래는 축제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것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남부의 연해지방 각지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축제로서는 국가적인 영웅으로 여겨지는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된 행사들이다. 1967년에 시작된 여수의 진남제가 널리 알려져 있다(문화체육부편, 『한국의 지역축제』, 1996년).

지역축제라고 부르는 것도 대부분이 관 주도에 의해 1980년대 이후에 시작한 것이다. 전통무속인 별신굿이나 세시풍속인 줄다리기 등의 민속적인 행사를 모체로 하는 것도 행정의 지원에 의해 규모의 확대가 의도되어 온 것이 많다. 관 주도의 지역축제에는 「군민의 날」이라든가 「문화제」라고 하는 명칭으로 「주민화합」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많지만, 현지 특산물의 진흥이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문화체육부, 1996년). 모두 예전에는 관청이나 제 기관의 대표 등 관직자가 퍼레이드의 선두에 서서 행진 하거나, 단상에 서서 인사하는 등 관의 주도성을 과시하는 연출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틀림없이 관의 권위와 관존민비를 가시화하는 의례가 되고 있었다.

진도에서도 이전에는 「옥주문화제」란 이름으로 퍼레이드형식의 행

사가 행해지고 있었다. 1975년부터는 「군민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계속되어 있지만, 완전한 관 주도의 행사다.

이 외에 잘 알려지게 된 진도의 축제로서 「영등제(靈登祭)」가 있지만, 이것도 관 주도에 의해 1977년에 갑자기 창출된 것이다. 원래는 “섬의 남부에 위치하는 회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여성들에 의해 행해져 온 민속행사(영등고사)가 축제로 발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근거는 지극히 애매하다. 필자가 농촌조사를 시작하려고 1972년의 8월말에 진도를 방문해, 도내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마을에 머물면서 조사를 했던 75년 당시까지 만해도 이러한 영등고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은 적이 없었다. 큰 썰물을 사리라고 하여 그중에서도 음력 삼월의 가장 큰 사리를 영등사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닷가 마을의 여성들이 함께 고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그러한 세시풍속의 행사가 있었으면 반드시 민속학자들의 관심을 끌어 들이고,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라남도편』에도 다룰 수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민속신앙이 전설과 결부되어 마을의 행사가 되고 있었다면 현지조사를 담당할 장주근 교수들이 몰랐을 리 없다. 또한 나의 현지 지인들도 모를 리가 없다. 고사를 지내고 있었다면 아마 가정의 부인이 개인적으로 바닷가에서 간단하게 축언하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축제만들기와 연출을 주도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군청이었다. 이 마을의 역사와 관련된 전설의 창출로부터 시작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무속의례인 씨김굿을 조합시키고, 지역토착의 전통색을 강조하는 축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군청의 관광과장 허모씨와 현지 출신으로 그 당시 광주에 주재한 신문기자였던 김정호씨 (후에 국립농업박물관장, 정부의 문화행정자문위원, 진도문화원장을 역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 고장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그 발단에 대해서는 큰 사리 때에 이 회동마을을 우연히 방문한 프랑스 대사 삐에르-랜디가 눈앞에서 바닷물이 빠져서 앞바다의 섬까지 길과 같이 드러난 것을 목격했다. 삐에르-랜디 대사는 이 장면을 보고 감격하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현대의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여 감격의 겨운 나머지 모래사장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었다고 한다. 대사는 귀국 후 그 광경을 프랑스의 신문에 기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졌다. 이것이 수난의 민족이자 선민으로 뽑힌 한국 땅에 기적이 일어나, 낙원의 출현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종말·메시아 대망을 개진하고 있었던 일부 크리스트교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순식간에 큰 화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밀어 닥치게 된 것이다. 수난의 땅 한국 속에서도 남방의 땅의 끝이기도 해야 할 진도, 진도에서도 읍에서 가장 떨어진 뒷쪽에 위치하는 바닷가의 마을이 뽑히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이 회동이라는 마을은 농지도 빈약한 마을으로, 미역양식이나 김양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호수도 적고 도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였다고 기억한다. 본토와의 사이에 아직 다리도 놓이지 않았던 당시, 프랑스 대사가 돌연히 이러한 변경의 바닷가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다. 대사는 진돗개 조사차 왔다는 설도 있지만, 그러면 군청직원이 현지를 안내했을 것이다. 기록도 사진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진돗개 이외에는 외부사람을 끌어들이는 재료가 없었던 것이다. 대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배를 타고 현지를 답방한 길이였다는 설도 있다. 그림을 그리는 데도 배를 타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큰 사리 때에는 배가 사주에 올라 앉아버릴 것이다. 대사관에 문의하면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확인해 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프랑스 대사를 둘러싼 여러 민담(Folklore)이 나왔다. 그 날 아침 일찍 읍의 대중탕에서 대사를 만났

다든가, 자신이 안내했다고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아무튼 프랑스 대사의 위광을 빌린 이 한국판 모세 설화는 예상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이에 맛을 들인 군청은 지역축제로서 본격적인 육성에 착수하고, 해안 가까이에 이 전설의 주인공인 할머니(봉할머니)의 사당을 세우고, 어느 대학 미술학과 교수한테 부탁해서 사당 속에 영정같은 그림을 내걸고 제사도 모시게 되고, 드디어 바닷가에 호랑이와 할머니의 석상도 세워졌다. 민속공연을 위한 상설무대가 마련되어져 국가지정의 인간문화재를 비롯해 진도가 자랑하는 전통예능인이 총동원되게 되었다. 또 마을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가정이 많았다. 군청측에서는 이 축제를 국가규모의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종교가 관계되는 「모세의 기적」이라는 모티프 대신에, 손동지(孫同知)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진도 유배전설과 결부시키고, 마치 역사상의 사실처럼 만들어 내고, 이것을 축제의 공식적인 기원이라고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쪽의 모티프에도 공통되는 점은 진도의 주변성에 대한 의식이며, 그것은 군청의 직원이거나 신문기자이거나 진도출신자이면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세의 기적에서는 외국인 프랑스대사의 권위를 빌리거나, 혹은 1976년에는 벌써 취재하러 온 NHK라는 외국 미디어의 힘도 활용했다. 즉, 프랑스 대사와 크리스트교의 모세 신화에는 글로벌한 중심성이나 권위와 직결시키는 것으로, 국내에서의 주변성을 일거에 역전시키는 전략이 예상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크리스트교 교회 중에는 영등축제의 기회에 진도를 찾아가는 순례같은 투어를 기획하고, 읍내에서 이 바닷가까지 행렬을 짜서 걷는 일단까지 등장했다.

손동지(孫同知)라는 인물의 전설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애매하지만 유배라는 국가 수준의 억울한 역사와 결부시키는 것으로 진도의 지리적·정치적인 변경성을 부각시키고, 이 섬의 역사·민속적인 지역색을 연출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모은다고 하는 전략이 선택된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 해변의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직결한 신앙과 의례에 뿌리 내린 전통행사로서, 타지방의 축제에는 보기 드물게 토착성을 파는 산품으로 창조되었던 것은 실은 관이 주도성을 발휘해서 관광개발의 경제효과를 우선하는 전략에 의한 결과였다. 그 전략은 지역진흥의 단초로서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을 진행시켜 온 문화관광부의 정책과 잘 합치한 것으로, 그 고장의 문화전통을 살린 축제라고 높게 평가되어, 뒤에는 국민적축제의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축제의 주체와 취지를 둘러싸서 주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군청과 그 고장의 주민과의 사이에 주도성을 둘러싸서 분규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 주도의 축제의 창출과는 별개로 박주언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에 의해 시도한 축제가 「진도평화제」이다. 이 축제에서는, 국가행정의 시점과는 다른 주민의 토착주의적인 시점과 정체성을 과제로 여겨지고 있어, 섬을 둘러싼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령을 위령하는 무속의례가 중시되고 있다. 그 기본적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고대부터 이 섬 주변의 해역에서는 수많은 전란이 되풀이되어, 그 때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이 빼앗겨 왔다. 이 변경의 바다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여인 사람의 영령은 모두 같이 귀중한 것이며, 지위나 정치적 배경과는 관계없이 역적도 무명병사도 모두 동등하게 위령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중심적인 권위나 귀천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평등성, 육지의 구심적인 권력구조와는 대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개방성 및 평등성과 결부된 바다의 상징성, 민중생활이나 신앙

과 결부되어 온 무속의례, 특히 위령의 씻김굿의 채용 등에 이 축제의 특색이 있다. 또, 그 방법에서는 민속놀이 등 주민들이 자주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주체성을 자각·고양하는 것을 중시되고 있는 점에서도, 지금까지의 관 주도에 의한 축제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명료하다.<sup>13)</sup>

## VIII. 결

본론에서 상술한 진도의 벼농사의 문화생태학적인 위치, 산과 바다의 성숙, 연해도서지역의 사회적 주변성, 관과 민, 정치적인 중심과 주변 등의 지표는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것인가? 예전에 민속학자가 일본인의 미식(米食) 중심성을 논하고 벼농사 지향이 일본 사회통합의 가치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말만으로는 일본에도 맞을 것 같다. 그러나 벼농사나 미식 중심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나오기도 했고, 어업이나 임업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것도 명확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바다도 긍정적인 가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며, 산과 바다의 대한 성숙론은 맞지 않는다. 연해도서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 보면, 일본에서도 어로를 천시하는 경향은 주로 서부 일본에 나타나지만, 일본에서는 어업의 비중이 높고 어민층도 두껍다. 어로나 수상운수를 전통적으로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거점이 각지에 흔하게 존재했고, 각 지방영주의 자치적 행정영역인 번(藩)은 이러한 전업어민이나 조운업자에게 특권 등을 부여해서 중시하고 있었다.

---

13) 이토 아비토 2007년.

관·민 사이의 정치적인 중심·주변과 같은 구도가 일본에도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적인 전통에 더해서 농업 이외의 어업이나 상업 분야를 독자적인 생활전통이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뿌리깊은 것을 보면 이러한 일반화는 어렵다. 일본과 비교하면 조선/한국 사회에서는 가치나 이념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정통성을 따지려고 해서 사회전체를 시야에 넣어서 논의하는 생활자세가 일반적인 것 같다.

진도의 사례에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이 도서지방의 주변성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중대한 과제로서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와 민족을 위주로 해온 사회 속에서 또한 최근의 글로벌화의 조류 속에서 이러한 지방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본적인 과제다. 코로나 교통 등의 정비에 따라 정보나 물류 면에서는 중앙과 주변의 격차나 사회경제적 거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 진흥이라는 명분아래 가장 간편한 기법으로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항상 중앙의 시점과 가치를 척도를 전제로 추진해 온 것은 명확하다.

도대체 소외라든가 주변성이라든가 격차라고 하는 개념들이 바로 그 자체가 실은 왕조시대 이래의 중앙집권체제 밑에서 관 및 이것을 둘러싸는 엘리트층에 의해 상층·주류의 시점에 바라본 것이다. 오늘날도 기본적으로 그 점은 변하고 있지 않다. 최근도 행정주도하에 경제적 소득수준을 우선하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자연환경과 결부된 재래의 생활이나 민속문화까지도 마치 소득증진의 수단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다.

문화를 이러한 조작대상의 실체로서 포착하는 “문화자원론”도 보편적 논리라는 외부의 시점에 보면 관광 개발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러한 상황판단 아래 눈앞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면, 경제적인

혜택의 기회가 뚜렷한 본토의 도시로 자기 생활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은 명확하다. 혹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어린이들만 생각하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주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도서지방은 인구유출에 의한 과소화와 노령화가 이어져 온 것이다.

중앙의 관점이나 가치를 우선해서 지역진흥을 꾀하려고 하는 시도는 관광개발 등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외부에의 의존구조를 재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더욱더 진행하고 있다. 생활의 편의성만을 우선시키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갖추면 갖출수록 혹은 정보 등의 소프트웨어 면의 정비가 진행될수록, 주변성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독자성조차도 무화되어 소멸해버릴 지 모른다. 결과적으로는 어디이거나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가 상실되게 될 것이다.

생활기반, 지역의 전통, 내셔널적인 차원, 글로벌적 차원이 점점 복잡하게 교차해서 파악해지기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 생활상(life-model)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과제에 있어서, 지역을 어떻게 인식해 표상할 지가 문제되는 것은 호남이나 진도뿐만 아니다. 진도에 있어서의 행정주도로 주도되는 축제를 비롯한 관광개발의 지역진흥정책도, 또 주민의 주도과 참가에 의한 토착지향의 축제도, 이러한 구조적인 관련 속에 위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시점에 선 역사인식과 바다의 문화적인 상징성, 그리고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기획, 놀이의 자세가 큰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호남지방 속에서도 특히 연해도서지역에 역사적으로 부과되어 온 과제이며, 오늘 더욱 보편성을 가지는 과제로서 부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伊藤巫人, 「韓国における祖先と歴史認識」, 阿部・伊藤・荻原編, 『民族文化の世界』, 小学館, 1990年4月, 196~217頁°
- 同, 「中国と日本の漂海漁民」, 網野善彦編, 『東シナ海と西海文化』(海と列島文化 第四卷), 小学館, 1992年4月, 249~272頁°
- 同, 「韓国の民間信仰における道教の伝統」, 『朝鮮文化研究』, 東京大学文学部朝鮮文化研究室 研究紀要, 第1号, 1994年, 179-192頁°
- 同, 『韓国珍島の民俗紀行』, 青丘文化社, 1999年°
- 同, 「朝鮮における王権の正統性」, 網野善彦編, 『王権と天皇制を考える：8王を見る視線』岩波書店, 2003年11月, 279-311頁°
- 同, 「周縁性の克服－韓国における祝祭と地域活性化の戦略」, 伊藤・韓敬九編, 『中央と周縁から見た日韓社会の諸相』,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7年3月131-168頁°
- 村井章介, 「倭寇とはだれか—十四~十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東方学』 第百十九輯, 2010年1月, 1~21頁°
- 김수산 편, 『정감록』 명문당, 1972년.
- 申景濬, 『산경표』, 최남선 편, 조선광문회, 1913년(영인판, 민속원 1995년).
- 진도군편, 『진도군지』, 1976년.
- 진도군지편찬위원회편, 『진도군지』, 2007년.
- 진도군문화원편, 『진도군읍지』 호남문화사, 1987년.
- 문화체육부편, 『한국의 지역축제』, 1996년.